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LENS INSIGHT / No.16

미국 수출통제 · 해외 데이터센터 · 허용된 연산의 경제성

미국 AI 반도체 규제의 새로운 표적

칩을 수출하지 않아도 AI 연산을 차단할 수 있는가

원격 연산의 허가조건과 클라우드·한국 공급망의 수익성 변화

칩의 배송지

어디에 설치했는가에서 출발한다

연산의 이용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실행하는지까지 본다

칩을 옮기지 않아도 거래 조건은 바뀐다.
이익은 허용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연산에 달려 있다.

발효된 규칙의 범위와 예외를 구분하고, 계약·대체 고객·현금 회수로 경제적 영향을 읽는다.

분석 기준일 2026.11.22

TRADELENS.KR

산업구조·가치사슬·단위경제 분석

01 / RESEARCH VIEW

GPU의 위치보다 판매 가능한 연산이 중요해졌다

TradeLens 판단 | 규제는 특정 고객의 접근을 제한하고, 수익성은 그 용량을 다시 판매하는 능력에서 갈린다.

미국은 칩을 제한 대상국으로 새로 보내는 거래뿐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가 특정 기업에 대규모 연산을 제공하는 구조까지 허가 체계로 연결했다. 11월 19일 발효된 규칙은 품목·최종 이용자·연산 규모·용도를 결합한다. 따라서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지만, 모든 클라우드와 AI 서비스의 전면 금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1] [2]

판단의 층위	핵심 질문	경제적 의미
법적 접근	해당 고객·용도에 연산을 제공할 수 있는가	허가·예외·기존 규칙에 따라 판매 가능 범위가 달라진다
상업적 판매	제한된 수요를 누가 얼마나 빨리 대체하는가	재판매 기간과 실현 단가가 고정비 회수에 영향을 준다
현금 회수	약정 대가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가	계약 유지·지급 능력·설비투자·부채 상환을 함께 봐야 한다

기본 전망: AI 수요 전체의 소멸보다 사업자별 수익성 차별화

설비가 같은 장소에 남아 있어도 허용 고객의 범위가 줄면 그 설비의 수익 기반은 좁아질 수 있다. 반대로 다른 고객이 기존 가격과 조건으로 용량을 채우면 충격은 작아진다. TradeLens는 설치 GPU 수보다 고객 구성, 계약 조건, 용량의 재판매 속도를 우선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이러한 변화가 향후 서버 주문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판단을 뒤집는 조건

허가와 예외 적용으로 서비스가 유지되고 대체 수요가 가격 할인 없이 용량을 흡수하면 수익성 압박은 제한된다. 서비스 중단, 재계약 지연, 선약정 비용 유지가 겹치면 같은 설비에서도 현금 회수 위험이 커진다. 어느 경우든 기업별 노출을 전체 산업의 손실액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02 / RULE & TIMELINE

발표·발효·경과조치는 서로 다른 시계다

확인된 사실 | 의견을 받는 interim final rule이지만, 11월 19일부터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규칙의 정식 명칭은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다. 2025년 AI Diffusion Rule의 철회를 정식 반영하면서 새로운 원격 연산 통제와 5개국 목적지 요건을 도입한다. 종전의 전세계 배분체계를 그대로 강화한 규칙으로 설명하면 변화의 방향을 놓친다. [2]

시점	확정된 내용	해석의 경계
2026.11.16	BIS가 정책과 규칙을 발표 [1]	정책 발표일과 법적 발효일을 분리
2026.11.19	연방관보 공표·발효 [2]	제안 단계로 보거나 일반적 시행 유예로 해석하지 않음
발효 후 90일 이내	기존 해당 연산 서비스의 허가 취득 조항 [3]	모든 신규 거래의 90일 유예가 아님
2026.12.21	적격 운송 중 거래의 경과조치 완료기한 [2]	11월 19일 실제 주문에 따라 운송 중인 등 조건 필요
2027.01.19	규칙 개정·추가 사항 의견 제출 마감 [2]	의견수렴 종료일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님

완화와 통제 강화가 한 문서에 함께 있다

원격 이용에 대한 통제는 구체화됐지만, AI Diffusion Rule의 전세계 RS 허가 요건과 관련 체계는 철회됐다. 경제적 효과도 단일한 방향이 아니다. 어떤 거래는 절차가 단순해지고, 다른 거래는 고객과 최종 용도를 입증해야 한다. “미국 규제가 강화됐다”는 한 문장보다 거래별로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를 보는 편이 유용하다. [2]

> **TradeLens 해석**
>
> 공급 가능한 국가의 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같은 국가·같은 데이터센터에서도 고객의 본사와 최종 모회사, 연산 제공 목적, 기존 계약의 성격에 따라 승인과 매출 전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03 / CONTROL MECHANISM

새 배송이 없어도 최종 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적용 구조 | 물리적 이동, 연산 서비스 제공, 최종 용도 변경을 구분한다.

EAR의 현지 이전은 같은 외국 안에서 품목의 최종 사용자가 바뀌거나 최종 용도가 바뀌는 경우를 포함한다. 새 §744.24(e)는 최초 거래 후 통제 대상 용도로 바뀌는 경우의 고지와 승인 문제를 연결한다. 칩을 중국으로 새로 운송하지 않아도 이미 제3국에 설치된 장비의 이용 방식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다. [7] [3]

칩·서버 공급
EAR 대상 품목
수출·재수출

〉

해외 데이터센터
설치·운영
고객·용도 변경

〉

최종 연산 이용
누구를 위한 접근인가
규모·용도 확인

개념도 · 물품의 공급과 연산의 이용은 다른 흐름이다. 동일 외국 내 최종사용자·용도 변경도 별도 검토 지점이 된다. [7]

겉으로 보이는 정보	추가로 필요한 정보	분석에서의 의미
서버가 있는 나라	최종 고객과 최종 모회사	설치 국가만으로 허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
직접 계약 상대방	다른 기업을 위한 모델 학습·제공 여부	명목상 계약과 경제적 수요 주체가 다를 수 있음 [2]
최초 수출 승인	이후 용도·사용자 변경과 승인 조건	최초 반출이 허용됐어도 모든 후속 이용을 보장하지 않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지속적인 판매 조건 관리

경제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장비를 판매한 시점에 거래 위험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급사·재판매사·데이터센터 운영사 사이에서 고객 정보, 용도 증빙과 변경 통지가 이어져야 한다. 이는 계약 승인 시간과 운영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실제 가격에 얼마나 전가되는지는 고객의 대체 선택권에 달려 있다.

범위: 해외 데이터센터와 EAR 대상 품목의 공급·현지 이전 구조를 분석한다. 모든 API 호출을 수출로 간주하거나 원격 전원차단 기능을 의무화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04 / THRESHOLD & KNOWLEDGE

1,200만 TPP는 GPU 대수나 사용시간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분석 | 적용 조건을 결합해 읽고, 수치 하나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조건	규정의 핵심	보고서의 판단 기준
품목	열거된 첨단 연산 품목·관련 소프트웨어·기술 [3]	모든 반도체·모든 서비스로 넓히지 않는다
이용 기업	해당 기업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 본사가 마카오·D:5에 소재 [3]	중간 계약 상대방과 최종 수요 주체를 구분한다
연산 규모	12,000,000 aggregate TPP 초과 [3]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문턱을 유지한다
합산 범위	단일 또는 linked data centers [3]	물리 연결 외에 자원을 통합하는 디지털 연결도 포함한다
인지 요건	knowledge: 높은 개연성 인식·의도적 외면도 포함 [6]	형식적 고객 진술만으로 위험 신호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8]
허가 심사	§744.24는 개별 심사 [3]	허가 필요를 자동 거절 또는 자동 허가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비교 가능한 숫자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Aggregate TPP는 해당 집적회로·상품의 TPP를 합한 규정상 성능 지표다. TPP에는 연산의 비트 길이와 이론적 처리 성능 등이 반영된다. GPU 개수, 실제 사용시간, 학습에 소비한 연산량, 전력 MW와는 다르므로 제품별 공식 산식 없이 임의로 “GPU 몇 대”로 환산하면 규제 규모를 잘못 읽게 된다. [6] [9]

문턱 아래여도 전체 규제의 면제는 아니다

기존 §744.23과 다른 최종사용자·용도 통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연방관보는 기존 규칙에서도 D:5·마카오 기업이 구매자이거나 주요 원격 이용자인 구조를 다뤘다고 설명한다. 새 문턱을 전체 EAR의 안전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3]

D:5는 EAR의 국가군이다. 본사·최종모회사 소재지와 소유·지배관계에 관한 실사는 관련되지만 동일한 기준은 아니다. [3] [6]

05 / DESTINATION & OWNERSHIP

같은 싱가포르 시설도 거래 조건은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 | 5개국 목적지 요건과 최종 이용자 통제는 서로 다른 층으로 적용된다.

새 목적지 요건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라질·태국으로의 대상 품목 수출·재수출·현지 이전에 적용된다. 미국 본사 또는 미국 최종모회사 기준의 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에는 보고 조건을 충족할 때 이 신규 목적지 요건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다. [4] [5]

시설·거래 유형	신규 5개국 요건	추가로 남는 판단
싱가포르의 미국계 최종사용자	미국 본사·최종모회사 및 보고 조건 충족 시 제외 가능	원격 이용자·용도 관련 §744.24 등은 별도 검토
싱가포르의 한국계 최종사용자	미국계에 대한 제외를 자동 적용할 수 없음	개별 허가·다른 적용 규정과 실제 거래 구조 확인
한국 내 데이터센터	한국은 신규 5개국 목록 밖	D:5·마카오 기업을 위한 연산 등은 별도 판단
5개국 밖의 다른 해외 시설	이 신규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 확인	최종사용자·용도·기타 목적지 통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미국계 조건부 제외도 정보 제출과 결합돼 있다

§743.10은 당사자·최종모회사·목적지·품목분류·제품·TPP·수량·거래일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는 월별이며 해당 거래 다음 달의 첫 영업일까지 제출하는 구조다. 따라서 조건부 제외는 규제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보다, 특정 요건 아래 허가 절차와 정보 제출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5] [10]

TradeLens 해석: 국적보다 구체적인 거래 경로

같은 나라에 투자하더라도 사업자의 기업구조와 최종 고객이 달라지면 거래 마찰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곧바로 미국계 클라우드의 확정적 이익 증가나 한국 기업의 수주 상실로 계산할 수는 없다. 허가 처리, 가격, 고객 전환과 실제 발주가 경제적 효과를 결정한다.

06 / EXCEPTIONS & CONTINUITY

추천 기능이 있다고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의 경계 | 전용 추천시스템, 생성형 기능, 기존 서비스의 경과조치를 분리한다.

§744.24에는 상업용 추천시스템에만 연산을 제공하고 요구 정보를 제출하는 조건부 예외가 있다. 핵심은 추천 기능의 존재가 아니라 전용 설계와 전용 사용이다. 새로운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소프트웨어 등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나 그러한 모델을 포함한 시스템은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3]

서비스의 성격	새 조문의 예외 판단	경제적 해석
상품·콘텐츠 정렬·필터·추천 전용	요구된 정보 제출 등 요건 아래 §744.24 예외 검토	일부 상업용 연산은 지속될 경로가 있다
생성형 기능을 포함한 추천 서비스	추천 기능만으로 전용 추천 예외를 주장할 수 없음	동일 서비스명이라도 실제 모델·기능 구성에 따라 다름
그 밖의 모델 학습·실행	품목·이용자·규모·용도와 허가를 결합해 판단	AI라는 명칭만으로 모두 금지·허용으로 나누지 않음

기존 서비스의 90일 조항은 신규 거래의 유예가 아니다

공표 이전부터 해당 대규모 연산을 제공하던 데이터센터에는 발효 후 90일 이내 허가 취득 조항이 있다. 그러나 기존 §744.23 등 다른 통제를 해소하는 조항은 아니다. 특히 연방관보가 설명하는 기존 추천서비스의 경과조치와 새 §744.24 예외는 적용 맥락을 함께 봐야 한다. [2] [3]

> **수익성에 중요한 것은 “중단 여부”와 “지속 조건”**
>
> 매출이 즉시 전부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허가·예외·기존 계약을 놓친다. 반대로 기존 고객이라는 이유로 영구 지속을 가정하면 승인·용도 변경 위험을 놓친다. 분석은 서비스별 지속 가능성과 재계약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BIS의 운영 안내는 미국계 목적지 제외 보고와 추천시스템 보고를 각각 구분한다. 한 경로의 제출이 다른 조문의 허가·제외까지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0]

07 / VALUE CAPTURE

규제의 비용은 고객 교체와 고정비 회수에 나타난다

TradeLens 분석 | 같은 설비라도 합법적인 고객 수요와 계약의 안정성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달라진다.

판매 가능 범위
허용 고객·용도·용량

〉

계약과 단가
유지·변경·대체 판매

〉

현금과 투자
고정비 회수·후속 발주

참여자	가장 먼저 변하는 변수	이익을 지키는 조건
클라우드 운영사	고객 승인·청구 가능한 용량·실현 단가	적법한 대체 수요를 빠르게 연결하고 유휴 기간을 줄임
센터 임대·전력 제공사	임차인의 계약 유지·지급 이행	비용 전가·약정 조건·재임대 가능성
GPU·서버 공급사	주문 승인·납기·구매약정·제품 구성	다른 고객의 주문이 감소·지연분을 흡수
메모리·부품 공급사	고객사의 신규 장비 발주와 생산계획	최종 수요 변화가 실제 부품 주문으로 전이되는지 확인

고객만 바꾸는 것과 장비를 옮기는 것은 다르다

동일 시설에서 고객을 교체하면 주된 비용은 모집 기간, 할인, 소프트웨어·서비스 전환에 나타난다. 시설이나 장비까지 옮기면 운송·재설치·네트워크 구성과 가동 중단이 더해진다. 어느 경우든 이동만으로 최종 이용자와 용도에 관한 규칙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3] [7]

희소성의 변화

통제의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는 GPU 확보 능력과 함께 고객을 확인하고 승인된 용량을 계속 판매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다만 실사와 승인 업무가 표준화되면 경쟁우위는 약해질 수 있다. 규제 대응 비용을 고객 가격에 모두 전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의 경제적 전달경로는 TradeLens 분석이다. 특정 회사의 제한 대상 매출 비중이나 추가 수주·마진을 추정하지 않는다.

08 / CONTRACT ECONOMICS

사용률·청구 가능한 용량·현금 회수는 다르다

공시와 분석 | 약정형 계약의 존재 때문에 물리적 사용률만으로 매출 감소를 계산할 수 없다.

CoreWeave는 2026년 3분기 매출의 98%가 약정형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약정형 계약을 take-or-pay, 종량제를 pay-as-you-go로 구분한다. 신규 시설에서는 고객 계약을 확보하기 전에 장기 전력공급 등 자원을 약정할 수 있다는 위험도 설명한다. 이는 계약 구조의 근거이며 이번 규제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13]

수익모델	매출을 읽는 변수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
종량제 연산	청구 가능한 이용시간 × 실현 단가	수요 보류·중단, 재판매 지연, 가격 할인
장기 약정형 연산	계약 용량·약정 대가·수익인식 조건	제공 의무·계약 변경·고객의 지급 이행
센터 임대·코로케이션	임대·용량 계약과 비용 전가 조항	계약 갱신, 임차인 신용, 재임대 기간
장비 공급	실제 출하·수익인식·후속 주문	승인·납기 지연, 재고와 구매약정 부담

계약상 보호와 현금의 안전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장기 약정은 사용량 변동을 완충할 수 있지만, 적법한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지급 능력까지 자동 보장하지는 않는다. 규제 이후의 계약 변경·중단 조항과 회수 조건이 중요하다. 반대로 계약이 유지되면 GPU의 순간 사용률이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폭의 매출 감소를 추정해서도 안 된다.

> **현금흐름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단계**
>
> 매출에서 변동 운영비와 고정 현금비를 차감한 뒤에도 이자·세금·운전자본·설비투자·금융리스 원금 등의 현금 부담이 남는다. 감가상각은 당기 현금 유출과 다르지만 자산 회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영업지표나 EBITDA를 곧바로 투자 가능한 현금으로 읽지 않는다.

09 / ILLUSTRATIVE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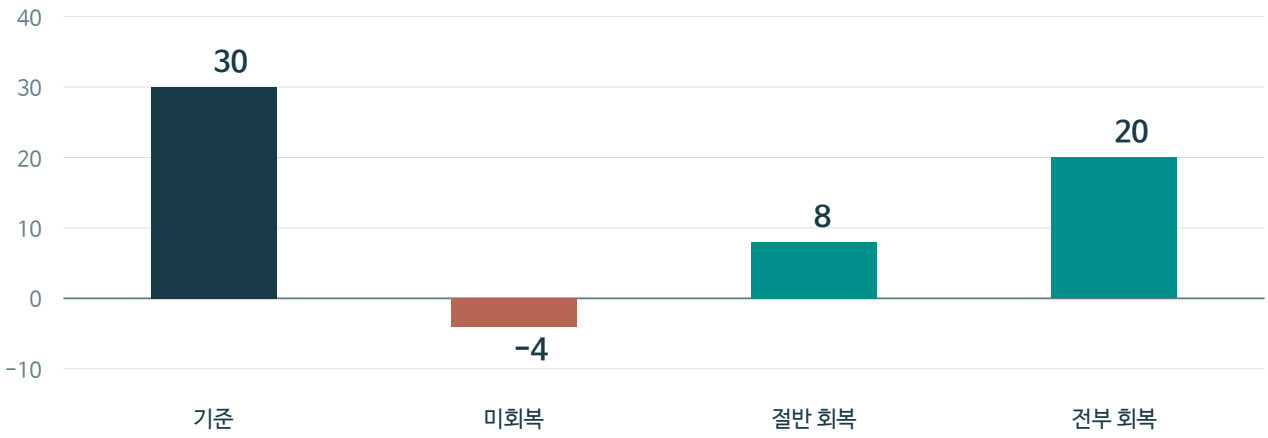
고객을 되찾아도 가격이 낮아지면 회복은 불완전하다

설명용 가정 | 종량제 서비스의 동일 용량·동일 기간 모형이며 실제 기업 전망이 아니다.

기준 매출을 100, 변동 현금비를 30, 고정 현금비를 40으로 둔다. 기존 유료 이용시간의 40%가 영향을 받으며, 대체 고객 회복률을 r, 전체 평균 단가 하락률을 d로 가정한다. 기준 대비 청구 가능한 이용시간 비율 q = 1 − 0.4 × (1 − r), 조정 매출 = 100 × q × (1 − d), 잔여액 = 조정 매출 − 30 × q − 40이다.

상태	회복률 r	단가 하락 d	매출	변동비	잔여액
기준	해당 없음	0%	100	30	30
미회복	0%	10%	54	18	−4
절반 회복	50%	10%	72	24	8
전부 회복	100%	10%	90	30	20

변동·고정 현금비 차감 후 잔여액 / 기준 매출 = 100



핵심 변수는 노출 비중만이 아니다

영향을 받은 이용시간을 모두 되찾아도 단가가 10% 낮으면 잔여액은 30에서 20으로 줄어든다. 가격이 10% 하락한 조건에서 잔여액이 0이 되는 q는 66.7%, 영향분의 회복률 r은 약 16.7%다. 대체 속도와 가격 방어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TradeLens 설명용 계산. 고정비는 유지되고 변동비는 이용시간에 비례한다고 가정. 규제 노출 40%와 할인 10%는 실측치가 아니다. 잔여액은 회계상 영업이익·EBITDA·잉여현금흐름이 아니며, 장기 약정형 계약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10 / KOREA & SUPPLY CHAIN

한국에는 직접 규제와 간접 주문 변화가 겹친다

확인된 사실·TradeLens 분석 | 국내 입지, 해외 운영, GPU·HBM 공급을 같은 노출로 묶지 않는다.

분야	구분해야 할 노출	다음 판단에 필요한 증거
국내 데이터센터	한국은 신규 5개국 목록 밖이지만 최종 이용자·용도 통제는 별도 [3] [4]	최종 고객·모회사, 허가·예외 요건, 청구 가능한 계약 용량
한국계 해외 클라우드	5개국 내 시설은 목적지 요건과 기업구조를 함께 판단 [4]	미국계 제외와 혼동하지 않은 거래 승인·계약 조건
HBM·메모리	3A090.c HBM은 새 §744.24의 품목 열거에서 제외; 별도 통제는 남음 [3] [9]	직접 품목 통제와 GPU 주문 감소·대체에 따른 간접 수요 분리
서버·기판·냉각·전력 장비	기존 시설의 고객 변화와 신규 설비 발주는 다른 시점	실제 주문·납기·취소·다른 지역 수요의 흡수 여부

엔비디아 공시가 보여주는 두 가지 경계

FY2027 2분기 공시는 지역매출을 직접고객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제시하며 최종 고객·배송지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 H20 관련 45억 달러 재고·구매약정 비용은 규제가 비용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FY2026 1분기의 사례이며 이번 규제 손실액은 아니다. [11]

11월 17일 실적발표의 다음 분기 전망은 중국 데이터센터 컴퓨트 매출을 가정하지 않았다. 이 전망은 새 규칙 발효 전 회사의 가정이다. 모든 중국 매출이나 해외 클라우드의 간접 중국 수요가 0이라는 뜻으로 확대할 수 없다. [12]

TradeLens 판단

한국 공급망의 핵심 변수는 “중국 수요가 줄었는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른 고객의 장비 발주가 이를 얼마나 흡수하는지, 제품 구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출하와 현금 회수에 시차가 있는지까지 봐야 한다. 현재 자료만으로 국내 이전 수요나 HBM 손실액을 정량화할 근거는 부족하다.

11 / SCENARIOS

허가·대체 수요·가격이 결과를 가른다

TradeLens 시나리오 | 확률·주가 전망이 아니라 결론을 바꾸는 관측 조건을 제시한다.

정책의 목적이 곧 산업 전체의 실제 손실 규모는 아니다. 집행 강도와 고객의 대체 선택, 사업자의 계약 조건이 결과를 결정한다. 아래 시나리오는 같은 규칙 아래에서도 서로 다른 수익성 경로가 가능한 이유를 보여준다.

경로	관측 조건	사업·공급망의 결과
기본: 선별 조정	허가·예외로 일부 서비스 지속; 영향 용량은 점진적으로 대체	사업자별 실사·승인 비용과 유휴 기간 차이; 신규 발주 속도 차별화
압박 확대	허가 지연·서비스 중단과 느린 고객 대체; 할인·선약정 비용 유지	클라우드 현금 회수 약화; 증설 연기·장비 발주 변경 가능성 확대
충격 제한	적법한 서비스 지속 또는 빠른 대체 수요; 단가·지급 안정	설비 이용과 현금흐름의 영향 제한; 공급망 주문의 지역·고객 이동에 그칠 수 있음

수요 이동과 수요 소멸을 구분한다

제한 대상 고객이 미국 기술 기반 연산을 덜 쓰게 되더라도 다른 고객의 수요가 충분하면 전체 출하는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세계 AI 수요가 커져도 특정 시설의 네트워크·가격·계약 조건이 새 고객과 맞지 않으면 그 시설에는 유휴 용량이 남을 수 있다. 시장 총량의 성장과 개별 자산의 수익성이 함께 움직인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정책 변화 외의 원인도 함께 통제한다

GPU 세대 전환, 전력 공급 지연, 금리와 고객의 자금조달도 주문·단가·가동에 영향을 준다. 규제 이후 지표가 나빠졌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모든 변화를 규제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기업 공시에서 계약 변경의 이유와 실제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반증을 받아들이는 기준

허용 고객의 수요와 장기 계약이 매출·현금을 안정적으로 지탱한다면 규제의 산업 손익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작다. 반대로 제한 대상 비중이 낮아도 대체 고객의 가격 협상력이 커지면 수익성 압박은 더 넓게 퍼질 수 있다.

12 / EVIDENCE TO WATCH

다음 분기에는 GPU 수량보다 계약의 질을 본다

판단의 갱신 | 규정·회사 계획·실제 실적을 같은 증거로 취급하지 않는다.

관측 항목	판단을 강화하는 변화	판단을 약화하는 변화
허가·집행	승인 지연·제공 제한 범위 확대	허가·명확한 예외로 서비스 지속
고객 대체	유휴 기간 장기화·전환 계약 부족	다른 적격 고객의 빠른 용량 흡수
가격·계약	재판매 할인·계약 변경·대금 회수 악화	단가·약정 대가·현금 회수 안정
비용의 경직성	전력·임대 의무 유지와 수익 기반 축소	비용 전가 또는 자원 재배치로 부담 흡수
장비·부품 주문	증설 연기·주문 취소·재고 부담	다른 지역·고객의 발주가 감소분 대체
규제 대응의 차이	고객 확인과 승인 처리 격차 확대	처리의 표준화로 사업자 간 격차 축소

미국 상무부 OIG는 11월 20일 제3국 우회 유출과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 접근에 대한 BIS 통제의 설계·집행 평가에 착수했다. 이는 평가 개시이며 위반 적발이나 집행 효과의 확정 결과가 아니다. 향후 허가 운영과 집행이 어떤 증거로 평가되는지 보는 자료다. [14]

> **최종 결론**
>
> 미국은 칩의 최종 배송지를 넘어 해외 데이터센터가 누구에게 어떤 연산을 제공하는지에 통제를 연결했다. AI 인프라의 가치는 보유 GPU에서 끝나지 않는다. 허용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용량,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 실제 현금 회수가 함께 있어야 한다.

TradeLens의 기본 판단은 전면적인 AI 투자 중단보다 사업자별 수익성 차별화다. 허가 상태와 고객 전환, 가격·계약의 질을 먼저 보고 그 변화가 신규 장비 주문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한국 공급망을 읽는 데도 적합하다.

13 / SOURCE REGISTER

출처 목록 · 규칙의 적용 구조

본문 출처번호·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같은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01. BIS | 미국 첨단 연산기술의 원격 접근 통제 발표 원문 열기

2026.11.16 · 공식 발표 · 정책 목적과 발표일

02. 미국 연방관보 | 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 원문 열기

2026.11.19 · 발효 규칙 · 91 FR 74970 - 74999; 서문·경과규정·개정 내용

03. BIS | EAR Part 744 · 최종사용자·최종용도 통제 원문 열기

2026.11.20 기준 · 현행 규정 · §744.23, §744.24; 문턱·예외·기존 서비스·용도 변경

04. BIS | EAR Part 742 · 목적지별 허가 요건 원문 열기

2026.11.20 기준 · 현행 규정 · §742.6(a)(6)(iii)(A); 신규 5개국·조건부 제외

05. BIS | EAR Part 743 · 특별 보고와 고지 원문 열기

2026.11.20 기준 · 현행 규정 · §743.10; 미국계 조건부 제외의 보고사항·월별 기한

06. BIS | EAR Part 772 · 용어 정의 원문 열기

2026.11.20 기준 · 현행 규정 · aggregate TPP와 knowledge 정의

07. BIS | EAR Part 734 · 관할과 현지 이전 원문 열기

2026.11.20 기준 · 현행 규정 · §734.16; 동일 외국 내 최종사용자·용도 변경

규정은 2026.11.22 분석 기준일에 적용되는 범위를 다룬다. 개정 규칙·현행 조문·정책 발표의 역할을 구분하며, 개별 거래의 허가 여부를 확정하는 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14 / SOURCE REGISTER

출처 목록 · 해석·기업 공시·집행

본문 출처번호·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같은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08. BIS | EAR Part 732 · 고객확인 지침과 위험 신호 원문 열기

2026.11.20 기준 · 공식 지침 · Supplement No.3; 위험 신호·추가 확인·의도적 외면

09. BIS | EAR Part 774 · 상무부 통제품목 목록 원문 열기

2026.11.20 기준 · 현행 규정 · ECCN 3A090; TPP 기술주석·3A090.c의 HBM 범위

10. BIS | Exclusion Note Submission 원문 열기

2026.11.22 기준 · 공식 운영 안내 · §743.10 보고와 §744.24(b)(2) 보고의 구분

11. NVIDIA / SEC | FY2027 2분기 Form 10-Q 원문 열기

2026.08.26 · 공시 · 7월 26일 종료; p.23 지역매출·pp.29,37 H20 재고·구매약정 비용

12. NVIDIA | FY2027 3분기 실적과 다음 분기 전망 원문 열기

2026.11.17 · 회사 발표·전망 · 중국 데이터센터 컴퓨트 매출 가정; 새 규칙 발효 전

13. CoreWeave | 2026년 3분기 Form 10-Q 원문 열기

2026.11.12 · 공시 · 9월 30일 종료; pp.19,80 약정 매출·p.62 전력 선약정

14. 미국 상무부 OIG | 우회 유출·원격 연산 통제 평가 착수 원문 열기

2026.11.20 · 평가 착수 공고 · 보고서 2027-551; 감사 결과·위반 확정 아님

기업 자료는 규칙 발효 전의 공시·전망이다. 사업구조의 근거로 사용하며 신규 규제의 실제 손실로 해석하지 않는다. 설명용 계산은 TradeLens의 명시 가정에 따른다.

15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이용 안내

확인된 사실, 회사 계획, TradeLens 분석과 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대상	2026.11.22 · 미국 원격 연산 통제와 해외 데이터센터·한국 공급망의 경제적 영향.
자료 성격	연방관보·BIS 규정·공식 운영 안내·기업 공시를 구분. 회사 전망은 실적과 분리.
규제 범위	EAR 대상 품목·목적지·최종 이용자·용도·규모를 결합. 특정 계약의 허가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
설명용 계산	10쪽은 종량제 지수 모형. 실제 노출·원가·가격·손실 추정이 아니며 장기 약정형 계약에 일괄 적용하지 않음.
수치·단위	TPP와 GPU 대수·사용시간·MW를 구분. 지역매출·직접 고객·최종 수요를 혼합하지 않음.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